

경남지역 여대생의 진로·취업 준비 실태와 시사점¹⁾

01.

조사 개요

02.

여대생의 진로·취업 준비 계획 및 과정

03.

여대생의 희망일자리에 대한 요구

04.

시사점

- 최근 청년 여성의 낮은 고용률, 노동시장으로의 이중구조 심화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돕는 데 목적을 둔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대학생 시기에는 청년 여성이 진로를 탐색하고 확립하여, 자신과 직업 세계에 연계된 정보를 수집, 계획 후 의사를 결정하며 진로 목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성공적으로 직업 세계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직업과 연계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대학생은 대학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취업을 구체화하고 진로를 준비하여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을 겪게 됨. 대학 단계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이 불일치하게 되면 대학 생활 전반뿐 아니라, 진로·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진로·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등과는 달리 4년제 일반대학의 여대생은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경남지역의 4년제 일반대학에서 여대생의 진로·취업 준비 실태를 전공계열별로 파악하여 대학에서의 여대생을 위한 진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01.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은 경남지역 4년제 일반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재학(재적) 중인 여학생(3~4학년 이상)이며, 717명이 응답함
- 조사기간은 2023년 9월 8일 ~ 2023년 9월 22일(14일간),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전문 조사업체 활용)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의 경우, 여대생의 진로·취업 준비 계획 및 과정, 여대생의 희망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만 전공계열별로 분석 및 활용함

1)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지역 여대생의 진로·직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

표1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문항
여대생의 진로·취업 준비 계획 및 과정	- 대학 전공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대학 전공 선택 이유 - 대학 전공을 고려한 진로·취업계획 여부 -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진로·취업계획 이유 - 진로·취업 준비 과정 중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대생의 희망 일자리 (형태, 지역)에 대한 요구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형태 - 졸업 후 희망하는 일자리 소재지 - 경상남도 내 희망하는 일자리 소재지 - 경남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 - 타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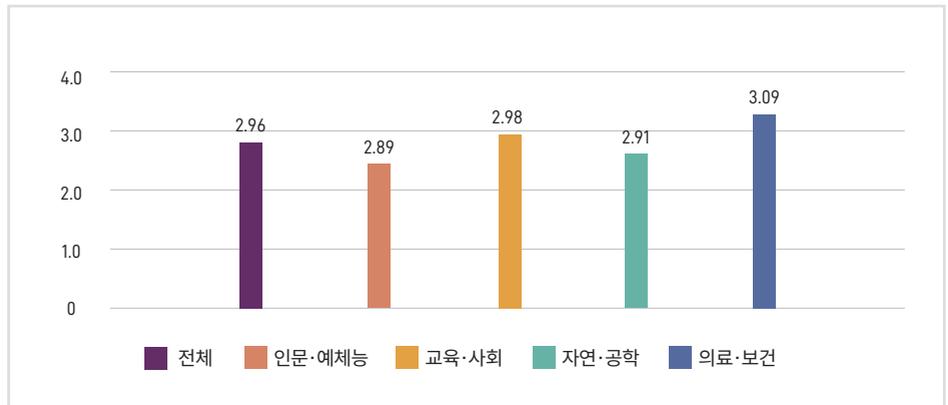
02.여대생의 진로·취업 준비 계획 및 과정

· 대학 전공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여대생의 대학 전공 만족도는 2.96점이며,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의료·보건계열 3.09점, 자연·공학계열 2.91점, 교육·사회계열 2.98점, 인문·예체능계열 2.8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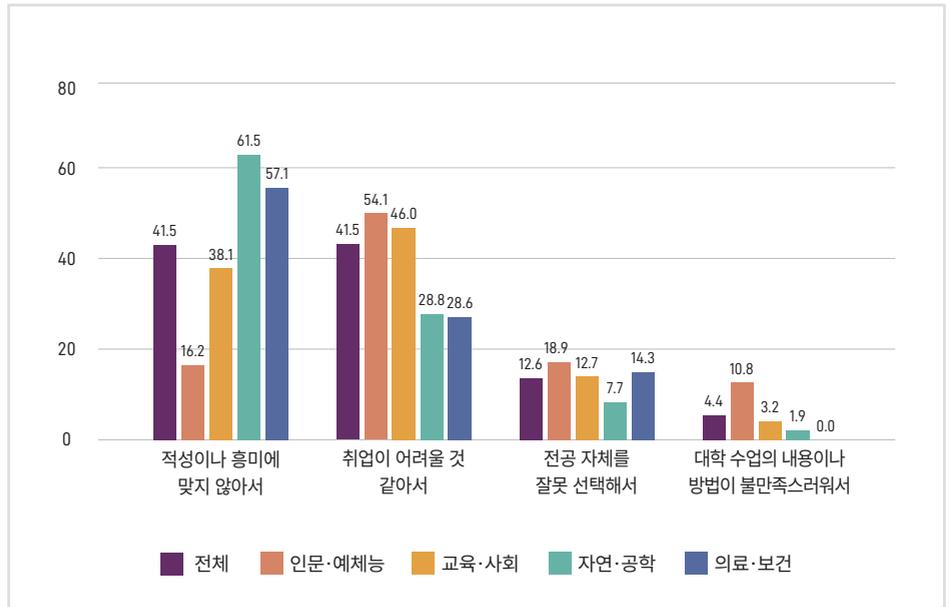
그림1 대학 전공 만족도



- 대학 전공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아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각각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공 자체를 잘못 선택해서' 12.6%, '대학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불만족스러워서' 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54.1% 및 교육·사회계열은 46.0%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공학계열 61.5% 및 의료·보건계열의 경우 57.1%로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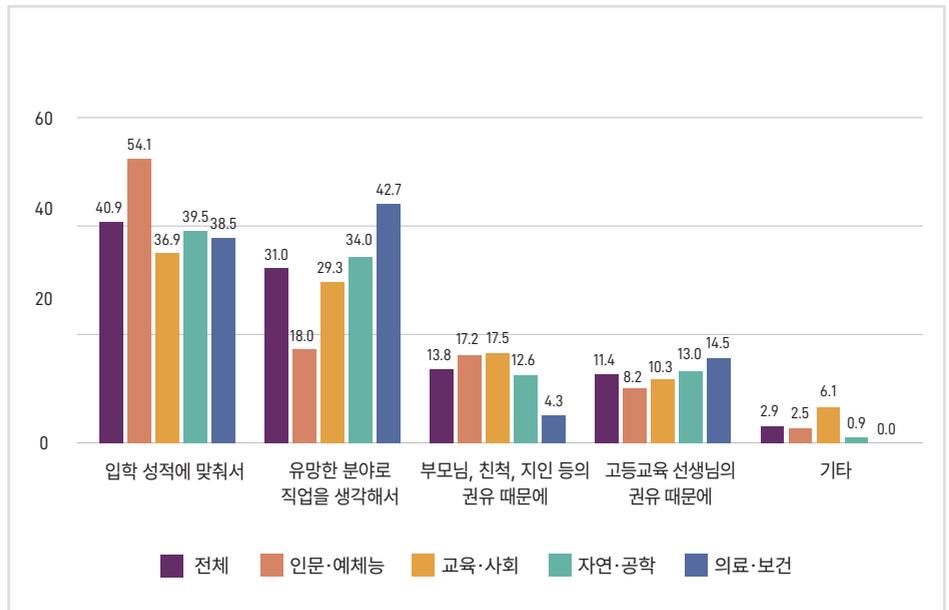
그림2 대학 전공 불만족 이유



· 대학 전공 선택 이유

- 전공 선택 이유는 '입학 성적에 맞춰서'가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망한 분야로 직업을 생각해서' 31.0%, '부모님, 친척,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1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54.1%, 교육·사회계열 36.9%, 자연·공학계열 39.5%로 '입학 성적에 맞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의료·보건계열은 '유망한 분야로 직업을 생각해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3 대학 전공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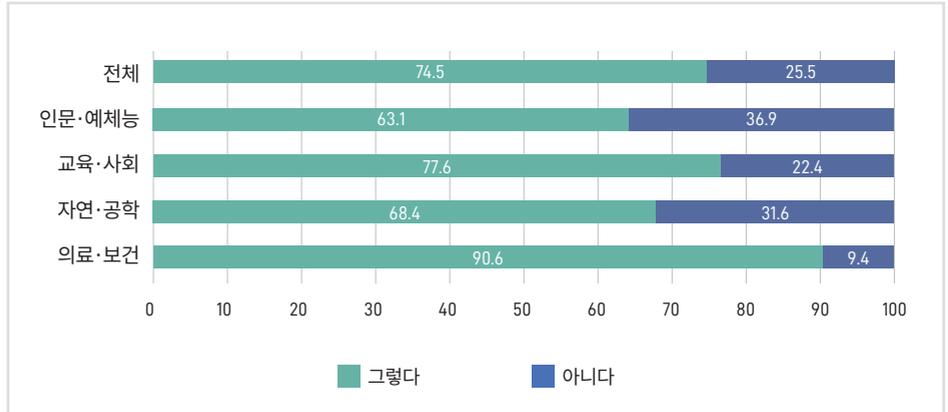


▪ 대학 전공을 고려한
진로·취업계획 여부

- 자신의 전공을 고려한 진로·취업계획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4.5%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그렇다' 비율이 인문·예체능계열 63.1%, 교육·사회계열 77.6%, 자연·공학계열 68.4%, 의료·보건계열 90.6%로 나타나,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진로 및 취업계획 준비를 하는 경우가 타 계열에 비하여 인문·예체능계열이 다소 낮게 나타남

(단위: %)

그림4 대학 전공을 고려한 진로 및 취업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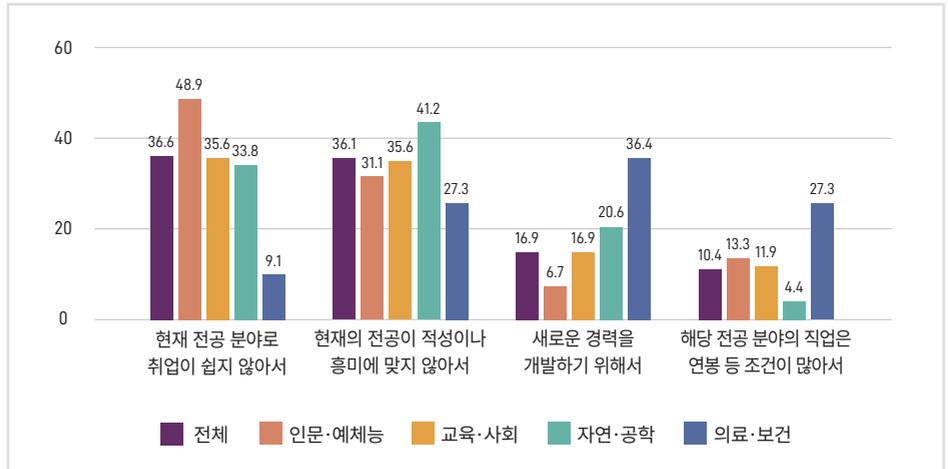


▪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진로·취업 계획 이유

-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진로·취업계획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전공 분야로 취업이 쉽지 않아'가 198명 (36.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의 전공이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아서' 165명(36.1%),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116명 (1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은 48.9%로 '현재 전공 분야로 취업이 쉽지 않아서', 교육·사회계열은 '현재 전공 분야로 취업이 쉽지 않아서' 및 '현재의 전공이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아서' 각각 35.6%, 자연·공학계열은 41.2%로 '현재의 전공이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아서', 의료·보건계열은 36.4%로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 인문·예체능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론됨

(단위: %)

그림5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진로 및 취업 계획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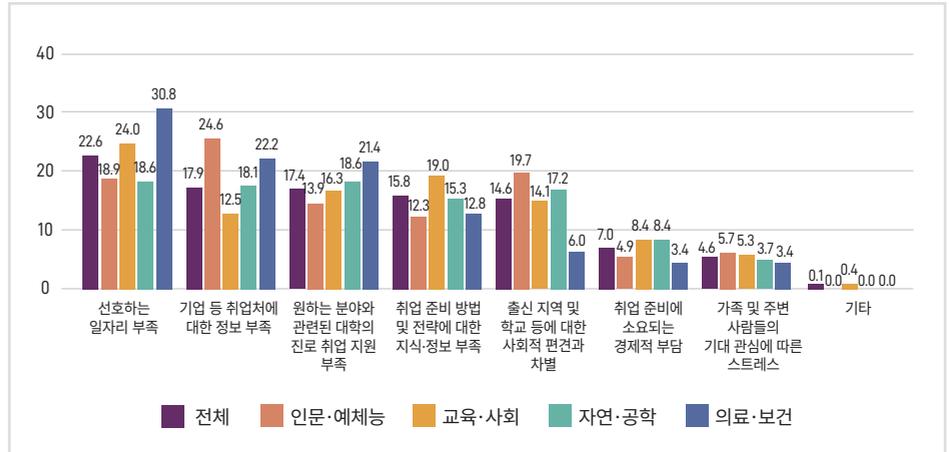


■ 진로·취업 준비 과정 중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 진로·취업 준비 과정 중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이 2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업 등 취업처에 대한 정보 부족' 17.9%,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 부족' 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은 24.6%로 '기업 등 취업처에 대한 정보부족', 교육·사회계열은 24.0%로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 자연·공학계열은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 및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 부족'이 각각 18.6%, 의료·보건계열은 38.0%로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6 진로·취업 준비 과정 중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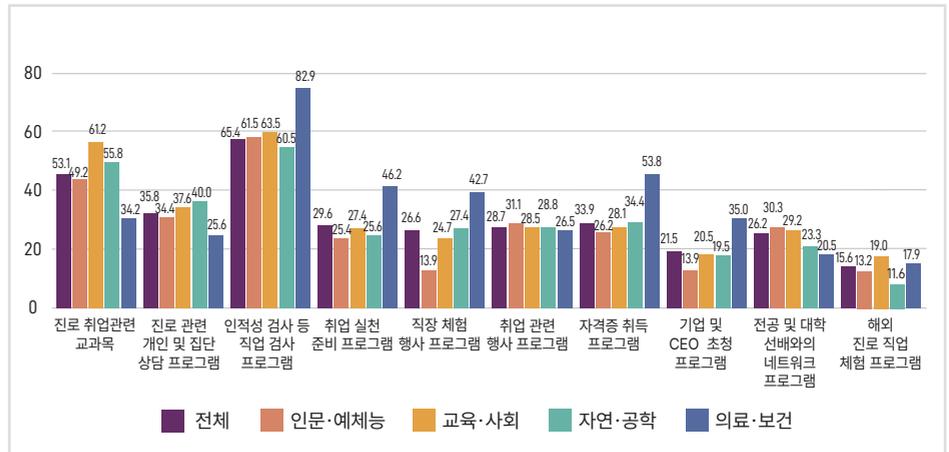


■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인·적성 검사 등 직업 검사 프로그램'이 65.4%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53.1%,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3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61.5%, 교육·사회계열 63.5%, 자연·공학계열 60.5%, 의료·보건계열 82.9%로 모든 전공계열에서 '인·적성 검사 등 직업 검사 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7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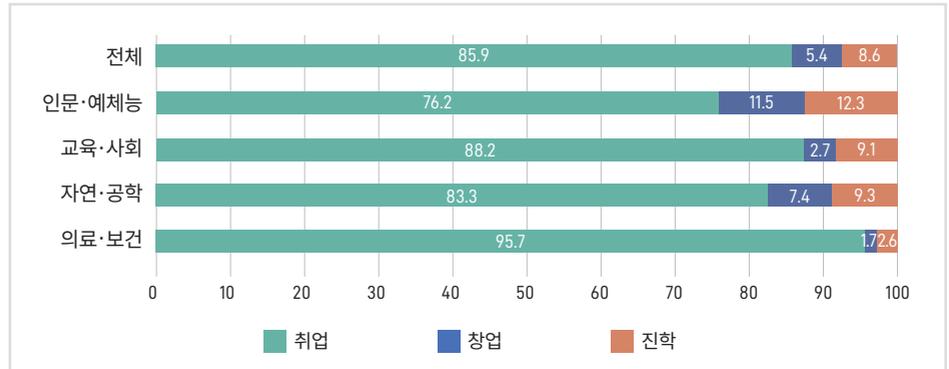
03.여대생의 희망 일자리에 대한 요구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형태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이 8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학' 8.6%, '창업' 5.4% 순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76.2% 교육·사회계열 88.2%, 자연·공학계열 83.3%, 의료·보건계열 95.7%로 모든 전공계열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8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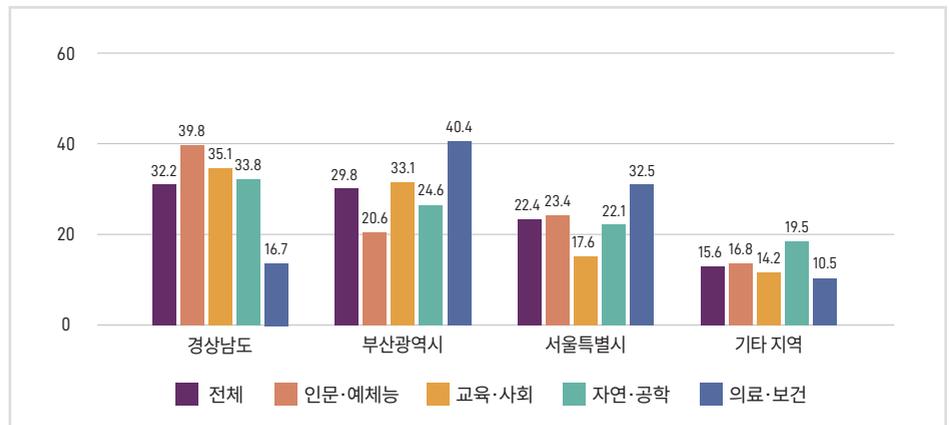


· 졸업 후 희망하는 일자리 소재지

-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자리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29.8%, '서울특별시' 22.4%, '기타 지역' 15.6%순으로 나타남. 즉 졸업 후 희망 일자리 소재지가 경남 지역 32.2%였으나, 경남 외 지역의 소재지를 희망하는 비율(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기타)이 67.8%로 나타나, 타 지역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39.3%, 교육·사회계열 35.1%, 자연·공학계열 33.8%로 '경상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의료·보건계열은 '부산광역시'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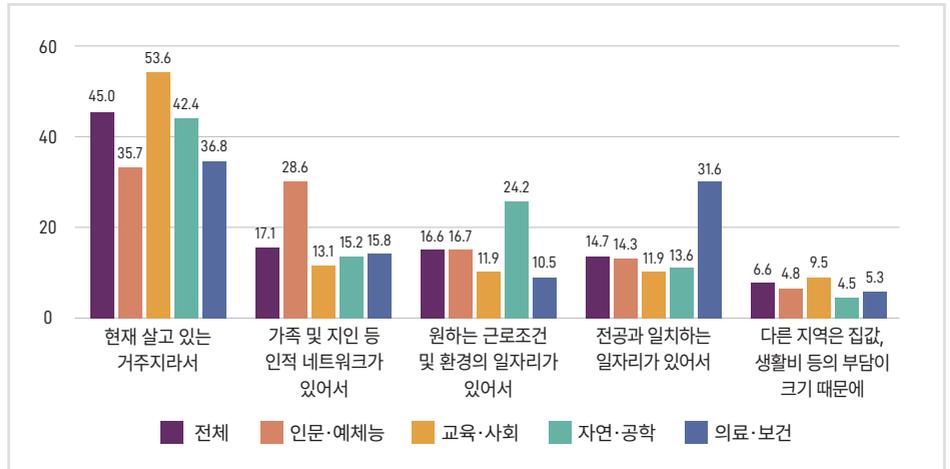
그림9 졸업 후 희망하는
일자리 소재지



■ **경남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

- 희망하는 일자리를 경상남도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남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 보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라서'가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 및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17.1%, '원하는 근로조건 및 환경의 일자리가 있어서' 1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35.7%, 교육·사회계열 53.6%, 자연·공학계열 42.4%, 의료·보건계열 36.8%로 모든 전공계열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라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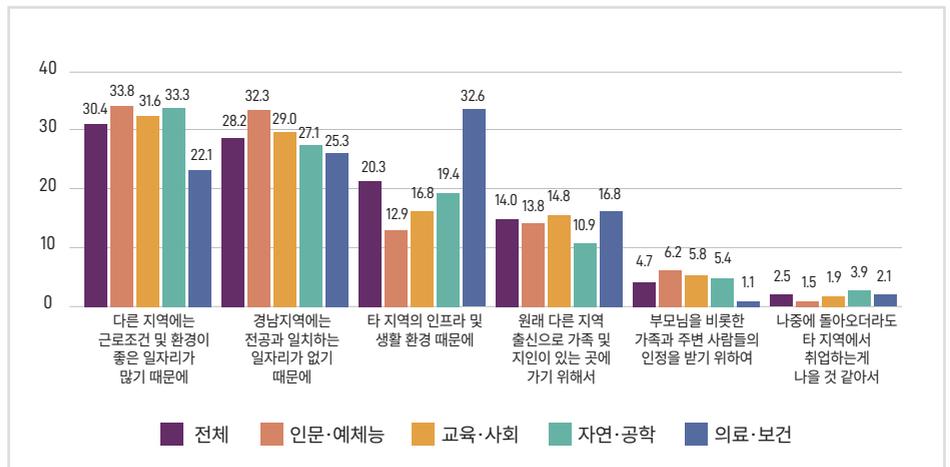
그림10 경남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



■ **타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

- 희망하는 일자리를 경상남도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는 근로조건 및 환경이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가 3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지역에는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28.2%, '타 지역의 인프라 및 생활 환경 때문에'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예체능계열 33.8%, 교육·사회계열 31.6%, 자연·공학계열 33.3%로 '다른 지역에는 근로조건 및 환경이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보건계열은 '32.6%'로 '타 지역의 인프라 및 생활 환경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11 타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



04. 시사점

▪ 시사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생이 한 학기동안 수행할 특정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한 과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ex. 건국대학교 드림학기제,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 이화여자대학교 도전학기제 등) (교육부, 2020)

- 경남지역의 4년제 일반대학은 공급자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공계열을 고려한 진로교육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의 고등교육 단계 진로교육 사업 중 진로탐색학점제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여대생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생활만족도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도 일부 4년제 일반대학에서 활용 중에 있음. 이에 경남지역의 여대생들이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해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목표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등을 높이고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 이렇듯 진로탐색학점제의 경우 여대생이 대학 입학 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갖고, 경남지역 사회로의 기여를 연결하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정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경남지역 청년여성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로탐색학점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